제7강 흰 그늘의 미학을 찾아서 1

(1교시)

흰 그늘의 미학은 미학적 명제를 중심으로 안팎으로 순환·확장하면서 사유해 들어가는 미학적 모험이다. 여기 우선 걸림돌이 된다면 2-4-8로 나아가는 팔려사율, 팔품사위 등등의 음양, 이수분화론, 둘로 나누는 숫자 계열의 예술적 작품과 북방 샤머니즘의 성수인 3-9-81과 1-3-5-7-9로 나아가는 홀수, 삼수분화론, 이 두 계열 즉 삼태극의 춤이라고 하는 태극·음양과 천지인과 음양, 셋과 둘을 다 포함하는 두 계열 사이의 관계층에 대한 탐구와 비교 등등이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 같다.
그늘 또는 흰 그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과 함께 붉은 악마 세대가 제시했던 세 가지와의 관계를 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환(環), 고리의 비밀에 대해서 접근하겠다.

그늘이 무엇인가. 남도예술, 특히 우리나라 전통예술 중에 속악(俗樂), 민속예술, 민중예술, 생활예술, 정악(正樂)이라고 하는 궁중·귀족음악과는 다른 민중적인 음악에서는 그늘이 하나의 미학적인 표적이 된다. 이 그늘은 우선 한(恨), 가슴 깊이 쌓여있는 어떤 슬픔의 근원이라든가 불만족의 콤플렉스 등을 뜻하는 한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다. 남도예술 같은 쪽에서는 그늘이 없으면 예술가로 쳐주질 않는다. 그늘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하나의 미학적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다.
이 그늘은 삶과 미(美), 삶과 예술에 있어서 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미학적·윤리적 패러다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미학적 패러다임을 일치시키는 것에 한국의 예술 또는 한국의 미 사상에 우월성이 있는 것이다. 이 그늘과 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천이두(前전북대 교수) 선생의 『한의 구조 연구』(문학과지성사, 1993), 117쪽에서 인용해본다. “판소리 용어에 그늘이라는 말이 있다. 판소리 가락을 오랜 수련을 통해서 잘 삭혔을 때 시김새가 붙었다, 시김새가 좋다고 하거니와 시김새가 좋은 광대의 소리에서 빚어지는 미적인 운취를 그늘이라고 한다.” 즉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다. 그러나 슬픔 없이는 이것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미적 운취를 그늘이라고 한다. “그늘이란 시김새 좋은 판소리에서 빚어지는 웅숭깊은 여운, 여유, 멋을 이르는 말이다. 비유컨대 노래의 씨를 뿌려 싹이 트게 하고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게 하여 거목으로 가꾸는 과정을 광대에 있어서 시김새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비유한다면 거목으로 자란 나무가 울창하게 가지를 뻗어 온갖 새들을 그 품에 안는 너그러운 여유, 그것이 곧 그늘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늘이라는 말은 판소리의 경우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윤리적 미덕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해 간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을 일러 그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멋이 있는 사람, 제대로 되먹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판소리에 있어서 최고의 미적 표상이 그늘을 빚어내는 경지인 것 같이 최고의 윤리적 덕목의 표상으로서의 한국적 한의 최고의 경지 역시 그늘을 드리우는 경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그늘이라는 말은 한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간직하고 있다.”

www.artnstudy.com

이런 긍적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과연 미학에서 소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그늘이 철학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우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느냐를 우선 더듬어 봐야한다. 칼 융은 그림자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림자와 그늘은 같지만 조금 다르게 사용한다. 우선 그림자는 융에 있어서 인간 내면의 투철한 생명력을 뜻한다. 자기 무의식을 깨달아가는 과정 즉 의식화 과정에서 처음 부딪히는 무의식·자의식 가운데 무의식의 부분을 그림자라고 부른다. 아직 어둠 속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자아의 일부분이다. 또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부분이나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그 어둠이 짙어진다. 이 점에서 천이두 씨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다. 악과 선이 합쳐져서 하나의 역설적 관계, 이것도 되고 동시에 저것도 되는, 악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한, 청승과 익살이 같이 있고 눈물과 웃음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미묘한 경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예술이 되고, 그런 소리가 걸걸걸려서 나오는 수리성이고 그럴 때 그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본말이 무엇인지 몇 년 전에 한번 일본 시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하나가 나이.”라고 한다. 즉, “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늘이 없다고 하면 예술가로서 끝이다. 그만큼 삶의 윤리적인 쓴맛 단맛 다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일본의 미학적 표준은 꽃이고 우리나라의 범 예술적인, 특히 음악 중심으로 볼 때 표준은 그늘이다.
그런 역설적 관계 전체를 그림자라고 한다. 그늘을 얻기 위해 피를 쏟아 내면서 독공을 하듯이 또 삶의 과정에서 그늘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슬픔과 고통, 쓰라림, 굶주림, 억울함을 견디고 삭히고 누르고 인욕정진(忍辱精進), 욕됨을 참고 정진하는 것이 살림이다.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살림은 정신착란이나 정신해리·분열이다. 그런데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창조적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림자를 나쁜 것으로만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밝은 것도 아니다. 역설적이다.

그림자가 나의 친구가 되느냐, 적이 되느냐는 나 자신의 태도에 달렸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마치 창조적 구세주로서의 신의 뒷면과 같다. 인류는 악과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 그림자에 대한 의식을 의식화할 수밖에 없다고 융은 말한다. 나치즘 이후에 융이 독일 국민 또는 유럽인들의 의식 세계의 질병·그림자에 대해서 한 말이다. 유럽은 선과 악의 분열이 불교처럼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집체적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나치즘을 접고 난 뒤에 유럽은 이제 선만이 아니라 악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유럽문명 안에 드리워진 큰 그림자다. 그렇게 본다면 그늘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불교 용어로 번뇌(煩惱)다.
이것을 대면할 용기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현대문명의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이 있다고 말한다. 융은 말하기를, 동양인 특히 동아시아인들은 선과 악을 항상 연계해서 생각한다. 이게 그늘이다. 선, 악, 밝음, 빛, 청승과 익살, 여자와 남자, 나와 너, 저승과 이승, 이것들을 항상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통사적인 문화라는 것이다. 유럽인은 선과 악, 밝은 의식과 무의식의 시커먼 그림자를 항상 상호 적대적으로 취해왔다. 융은 결론적으로 유럽은 동아시아로부터, 동양으로부터 큰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그림자론이 그늘론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늘은 시김새와 관계있다. 마치 김치나 된장을 담을 때 발효시키는 효과와 똑같은 심리적 발효다. 스트레스가 왔을 때 바로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를 물고 지그시 참는 것이

www.artnstudy.com

다. 다 풀어버리면 멜로드라마 아니면 복수극이 된다. 멜로드라마나 복수극은 예술에서는 제3, 제4차적인 저급한 예술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미학적 기제가 풀어져버리기 때문이다. 미학적 기제란 무엇인가. 윤리와 연관해서 미학적 깊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 깊이가 바로 발효다. 참고 안으로 심화시키면서 거기서 보다 큰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는 시도 안 되고 좋은 예술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시김새는 그늘을 만드는 중요한 길이면서 전통예술의 중요한 미학적 조건이 된다.

그늘 앞에 '흰'은 왜 붙었을까. 이건 개인적인 체험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흰'은 우리말로 '신'에 해당한다. 머리가 흰 할아버지보고 신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전통 사당패 놀이 같은 데에는 가끔 머리가 하얀 신할아버지가 나온다. 밝, 한, 불, 이런 것들이 전부 흰 빛, 성스럽고 거룩한 초월성, 소위 아우라다. 그늘이 어두컴컴하면서도 그 안에 대립되는 것이 서로 얽히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 숨어있는 성스러운, 거룩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 측면이다. 새 차원이 떠올라오는 것을 흰 그늘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흰 그늘의 확장 범위는 상당히 커진다. 흰 그늘이 생명학과 우주생명학까지 연계되려면 조건이 있다.

주역에서는 문왕팔괘(文王八卦), 정역 같으면 정역팔괘가 있고 그 이전 상고대로 가면 복희팔괘(伏羲八卦)가 있다. 주역 28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켜졌던 문왕팔괘에 남과 북이 지축이다. 남과 북은 이(離)와 감(坎)이다. 이는 빛을 뜻하고 감은 그늘을 뜻한다. 팔괘의 남방에 해당하는 것이 이이고 북방에 해당하는 것이 감이다.
흰 그늘의 확장 범위가 우주생명학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내면과 삶의 문제, 내면의 아우라가 외면의 에로스나 리비도 또는 이성적인 코기토(Cogito) 같은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지려 할 때, 또 그것이 우주적으로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따지려고 할 때, 주역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산 김석진 선생의 『대산주역강의』(한길사, 1999)에서 감괘(坎卦)에 대해 잠깐 인용하겠다. "감(坎)은 빠지는 형국으로 어두운 밤과 추운 겨울을 뜻하며 이(離)는 건지는 상으로 더운 여름과 밝은 낮을 뜻한다." 또 뒷부분에서 "이(離)는 활동하는 낮의 때"라고 했다.
앞으로 흰 그늘의 미학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면 우리가 사단법인 생명과 평화의 길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특히 인간 내면의 도덕적 황폐, 인간 내면의 의식의 어두움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실패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장이 실패라고 한다. 전 지구의 시장이 실패했다고 한다.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혁명에 의해서도 커버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의 입장이 시장과의 대립적 접근에서 반은 해쳤다는 이론이 자꾸 나온다.
시장이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기능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때 이 빛과 그늘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구 전체 생태계와 관련이 있다.

세계적으로 너무 춥지도 않고 건조하고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중앙아시아다. 거기에 석유와 가스가 엄청나게 나온다. 2018년부터 100년 폭염이 온다고 하는데 이 폭염은 지중해 주변과 북대서양 주변을 강타한다고 한다. 5000년 전 빙하기 이후에 지금과 비교한다면 최고의 온난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벼, 쌀농사는 동남아시아에서만 가능했는데, 이 종자

www.artnstudy.com

가 벼 농사꾼들과 함께 북상한다. 한반도 서남쪽으로 빙 돌아서 중국 요동 거쳐서 황하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상했다.
제3의 길은 무엇일까. 지구와 주변 우주 사이의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생명학, 지구생태계 오염과 전쟁, 생명의 파괴,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문명을 조성할 때에 지구 생태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적어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와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과학이 발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통합적이고 탁월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과학이 나오려면 인문학 쪽에서 애당초부터 탁월하고 동서통합적인 새로운 담론이 나와야 한다. 전 지구적이고, 전 생명적이고, 전 생태계적이고, 전 인류적이고, 전 우주적인 어떤 담론이 나와야 한다.
이 담론에 대한 요구가 지금은 압도적이지만 이미 1850년대에 어떤 분에 의해서 계시가 있었다. 계시, 숙제, 화두. 이것과 함께 붉은 악마하고 흰 그늘의 관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자.

사단법인 생명과 평화의 길의 선언문을 함께 읽어 본다.

“분노나 폭발이 아닌 ‘삭힘(견딤)’으로 인욕정진(忍辱精進)하는 삶의 자세에서 그늘이 깃든다. 그것은 그윽한 슬기로움과 숨은 용기일 터이다. 예술적으로 그것은 피를 몇 대접씩 쏟는 독공(篤工)의 결과로 슬픔과 기쁨, 웃음과 눈물, 청승과 익살, 이승과 저승, 사내와 계집, 나와 너 등 온갖 상대적인 것들을 함께 또는 잇달아, 하나로 또는 둘로 능히 표현할 수 있는 성음(소리)인 ‘수리성’을 ‘그늘’이 깃든 소리라고 한다. 예컨대 임방울의 심청가에서 심봉사가 개굴창에 빠지는 청승스런 대목을 도리어 익살스럽게, 뺑덕어미의 우스꽝스런 작희를 오히려 심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이 끝없는 인욕정진의 ‘삭힘’에서 비롯된 ‘시김새’가 있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그늘’이라 하는데 우리 소리의 미학에서는 바로 이 ‘그늘’이 결정적이다. ‘저 사람 소리엔 그늘이 없어!’하면 예술가로서는 끝장이다. 바로 이렇게 윤리적 패러다임과 미학적 패러다임이 일치하는 데에서 우리 민족의 민중예술과 미학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그늘’도 ‘귀신울음소리(鬼哭聲)’까지 표현할 정도래야 진정한 예술로서 ‘지극한 예술(至藝)’에 이르고 지예만이 참 도(道)에 이르는 것이다.”

“‘귀곡성’까지 가려면 ‘그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주를 바꾸려면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늘이 있어야 하고 그 그늘만 아니라 거룩함, 신령함, 귀기(鬼氣)나 신명(神明)이 그늘과 함께 있어야하며 그늘로부터 ‘배어나와야’ 한다. ‘아우라’ 혹은 ‘무늬(文)’다. 바로 이 경지를 ‘흰 그늘’이라 부른다. ‘흰’은 곧 ‘신’이니 ‘한’ ‘밝’ ‘불’ 등이 ‘흰’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흰 빛이 눈에 보이게 베어 나올 때에 적어도 역수성통원리(易數聖統原理), 1879년에서 1885년 사이에 충청도 연산(지금의 논산) 인내강이라는 강가에 띠울이라는 마을에서 『정역正易』을 발표한 김일부 선생의 기본 논리 중 하나가 이것이다. 이것은 참여할 참(參)자에 도울 참(贊)자를 써 참찬론(參贊論)이라고 해서, 마치 뉴턴의 우주관처럼 인간은 신 또는 자연의 뜻을 깨달은 뒤에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을 뿐이지 그 질서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서양과학도 칼 융과 볼프강 파울리(Wolfgang Pauli)의 심리물리학에서 인간의 내면

www.artnstudy.com

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 둥근 만다라 같은 형상이 나타날 때, 즉 인간 내면에서 원만한 우주가 실현되면, 우주 공간에는 비행접시가 나타난다고 했다. 심리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비인과적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동시적으로 우주공간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관찰자참여우주론은 가속기 안에 원자를 넣고 돌렸을 때 그것이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의 방향에 따라서 입자운동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관찰자까지 참여한 우주의 변동을 이론화시키는 것이다.

"1850년대 무렵 충청도 연산(지금의 논산) 인내강변의 '띠울'이란 마을에 한 기인(奇人)이 살고 계셨다. 전력은 참판까지 한 분인데 낙향하셨다. 연담(蓮潭) 이운규(李雲奎)선생이시다. 연담선생 문하에 세 사람의 제자가 있었다 한다. 최수운(崔水雲), 김광화(金光華), 김일부(金一夫)다. 연담은 최수운에게 선도(仙道)부활의 동학을, 김광화에게 불교혁신의 남학(南學)을, 김일부에게 유학의 꽃인 주역(周易)의 일대혁파에 의한 간역(艮易 즉 正易)의 길을 제시해주었다."

이때 준 화두가 바로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 '영동천심월(影動天心月)'. '그림자가 하늘, 마음에 뜬 달을 움직인다.'
천심월(天心月)을 주역 이후의 역학에서는 우주핵이라고 한다. 하늘님을 믿는 경우에는 하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되는 인간 존재의 핵은 황중월(皇中月)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 마음의 가장 심층부다. 요새 뇌수학, 홀로그램 등 칼 프리브럼 같은 뇌 생리학자들은 인간의 뇌 세포가 우주 천체의 변화, 예컨대 블랙홀이라든가 초신성이 폭발한다든가 한 은하계가 전부 한꺼번에 해체돼버린다거나 분해되서 녹아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다는 것이다. 이 뇌 수학을 테이야르는 '우주 진화의 화살'이라고 했다. '뇌 수학은 우주와 인류 진화사에 가장 앞서가는 화살이다.' 뇌 수학, 뇌 과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연관성, 인간의 뇌 활동과 우주의 활동의 관계입니다.
천심월이 인간 존재의 핵, 사람 마음의 최심층과 일치했을 때가 후천개벽이다. 이게 우주의 대전환이다. 이는 1860년에 최수운이 계시를 받으면서 시작되었고, 고대의 부활이라는 형태를 띤다. 3천 년 전에 있었던 삼일신고나 천부경 같은 고대의 경전 가운데 나타난 인중천기(人中天氣), 인간 안에 천기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고대의 지혜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인문학적인 담론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 촉발이 있어야 과학이 움직인다.

www.artnstudy.com